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7월~9월분)

달갈속의 생

金勝熙 지음

경향신문 신춘문예(1973) 당선작 「그림속의 물」에서 뛰어난 언어구사 능력을 인정받았던 시인의 4번째 시집. 첫시집 「왼손을 위한 협주곡」 이후 「태양미사」 「미완성을 위한 연가」 등에서 「광기」와 「신들림」 「죽음」의 절망세계를 표현해왔던 시인의 최신작 76편을 모아 엮었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이미 부화의 꿈이 깨진 시대의 삶”에 대한 날카로운 현실비판을 가하고 있다.

문학사상사 / A5신 / 232면 / 2500원

우주의 암호

하인즈 페이겔스 지음 / 이호연 옮김

흔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물리학의 이론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과 관련시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저자는 자연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 법칙을 우주 속에 감추어진 '우주의 암호'라고 보고 이를 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발달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이를 바탕으로 한 입자물리학과 우주론 등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 실험과 함께 해설하고 있다.

범양사출판부 / A5신 / 394면 / 5200원

시의 고향

최덕교 엮음

6·25때 대구에서 창간된 학생요양지 「학원」에 발표된(1952.12~1961.9) 600여편의 학생시 가운데 303편을 가려뽑아 엮은 책. 각 시마다 당시 詩選을 맡았던 이들의 평도 달았다. 정공채·정진규·이승훈·양성우 등 시인은 물론 이계하·김주영·유현중·전상국 등 소설가와 김병익·김선학 등 문학평론가 등 '학원문단' 출신들의 학생시절 소박한 시들을 만날 수 있다.

창조사 / A5신 / 372면 / 3800원

파레아나의 편지

엘레나H. 포오터 지음 / 강위수 옮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젊은 목사와 결혼했던 언니 제나가 남긴 딸 '파레아나'라는 소녀가 동생 파레이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차갑고 이기적인 파레이와 자상한 톰할아버지, 인정많은 가정부 낸시가

있는 가정에, 명량한 주근깨 투성의 파레아나가 작은 기쁨의 원천이 되어간다는 줄거리다. 청목사 / A5신 / 270면 / 2500원

세번째 만남

최미나 지음

「合流」 「梅花를」 등의 작품집을 낸 바 있는 작가의 세번째 창작집으로 최근작 10편을 실었다. 사위의 전제산인 집을 몰래 팔아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행량 치는 장모이야기를 그린 「불신의 덧」이나 노추의 입구에 선 팔자 사나운 여인들의 이야기 「계절의 끝」을 비롯 여성세계 특유의 모습을 강한 리얼리티로 묘사하고 있다.

미래문학사 / A5신 / 272면 / 3500원

정공채 이솝우화

정공채 지음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던 이솝이 지은 우화들을 오늘의 세대에 건주에 풍자한 이야기모음. 술한 동식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우화들 가운데 토끼가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을 비롯해서 천생으로 옆으로만 가는 게가 「앞으로 걷기」의 모범을 보일 수 없음을 풍자한 「어미개와 새끼개」 등 100여편을 모았다.

백양출판사 / A5신 / 210면 / 2700원

그리스인의 이상과 현실

G.L. 디킨슨 지음 / 박만준, 이준호 옮김

고대 그리스인이 그들의 현실과 삶 속에서 어떻게 고유의 사상을 형성해가는가를 폭넓게 서술한 책. 서양철학의 원류로 지칭되는 고대 그리스사상의 내면을 그리스인의 총체적 삶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크게 그리스인의 종교관과 국가관, 개인관, 예술관 등을 문학과 사상, 예술품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서광사 / A5신 / 252면 / 3500원

미래의 선택

鄭範謨 지음

우리나라의 지난 이삼십년간의 사회문제와 이념, 문화문명의 향방에 대한 저자(한림대 교수)의 교육적 관심사를 폭넓게 기술한 책. 저자는 현실점의 한국정치와 사회적 민주화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보고 교육문제, 교육위기의 문제를 사회전반의 재지향의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다.

나남 / A5신 / 288면 / 4500원

背信의 科學者들

W.브로드, N.웨이드 지음 / 朴益洙 옮김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세계에 정면도전, 그 기만의 역사와 구조를 파헤친 글을 묶었다. 엄밀한 논리적 과정과 객관성에 의해 연구되는 과학체계라는 믿음과는 달리 거짓 데이터와 날조가 숨어 있는 기만의 과학 역사를 하나하나 보고하고 있다. 과학의 기만문제를 다룬 129편이 논문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과학역사에 흔히 있어왔던 기만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다.

겹지사 / A5신 / 272면 / 4500원

대실패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음 / 명순희 옮김

공산주의의 체제와 교리의 양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종말적 위기를 분석, 기술한 책. 전체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공산주의의 비극이 소련의 정치·사회·경제적 실패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련체제를 개혁하려는 현행 시도를 상술하고 동유럽·공산주의를 고찰하며, 중국에서 자생한 형태의 공산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울유문화사 / A5신 / 326면 / 4500원

프로 아이디어맨

尹仁奎 지음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패턴과 효과적 기법들을 제시한 책이다. 갖가지 생활 속의 아이디어 발상법과 메모와 정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 바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목상법·독서법·단어법 등 아이디어 발상법과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 준다.

가람출판사 / A5신 / 180면 / 2700원

晚翠堂記

金文洙 외 지음

1989년 제20회 동인문학상 수상작과 수상후보작 4편을 모은 책. 수상자인 金文洙의 「晚翠

堂記」는 '만취당'이라는 古家를 통해 한집안 3대의 모습을 해학적인 의식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문학평론가 김선학씨는 김문수의 작품세계를 '일상 속에서 찾는 의미'로 파악한다. 후보작 「얼음벽의 풀」(金香淑) 「破盧湖」(吳貞姬) 「숨은 사랑」(鄭鍾明) 「신문과 신문지」(최수철)과 수상작가의 대표작으로 「덧니」와 「심씨의 하루」도 수록했다.

조선일보사 / A5신 / 332면 / 3900원

대통령과 메시아

정진홍 지음

종교를 통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 글모음. 그동안 「샘이 깊은 물」 등지에 게재됐던 여러 글들을 모아 엮었다. 저자는 삶의 실체는 종교를 그 삶으로 안고 있어 문화비평의 기능을 종교가 간파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종교문화란 무엇이며,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오늘의 현실에서 종교문화에 거는 저자의 애정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조선일보사 / A5신 / 318면 / 3500원

이야기 한국사

교양국사연구회 엮음

단군조선의 건국역사에서 현대의 4·19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식으로 엮은 책. 우리 역사의 기원에서부터 동명성왕을 시조로 하는 고구려의 최후, 백제의 융성과 신라의 황금시대, 그리고 일제하 광복운동 전개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다.

청아출판사 / A5신 / 482면 / 4500원

3·1운동의 선봉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엮음

역사의 현장인 각 고장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간 책. 제3대 동학교주였고 3·1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손병희선생과 그의 고향인 충북에 있는 여러 사적과 기념물 등이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또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선생의 일생과 함께 그 고장 주변에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을 해설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 A5신 / 156면 / 1800원